

역사문화탐방 결과 요약

중국문화

상해는 습하지만 경제적으로 우수하고 야경이 예쁘다.

식문화

기름요리가 많고 고수 향이 강하지만 맛있고 적응하면 더욱 중독된다.

중국 내 역사

중국의 다양한 역사와 항일운동의 역사가 아직 숨쉬고 있다.

중국 안전

중국의 안전성은 무시 못할 정도로 훌륭한 수준에 달해 있다.

1. 중국최대 경제 도시 상해 현지 상황



- 우리나라에 황사 및 미세먼지 영향을 주는 중국 대기 환경을 생각하여 안경을 줄 알고 마스크를 챙겼는데 맑고 깨끗한 하늘이 펼쳐져서 놀라웠다. 상해는 도시가 강에 둘러싸여 있어 습한 도시이기 때문에 비가 자주 오면서 대기질을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

- 중국을 들어선 순간 테슬라, 벤츠, BMW 등 외제차들이 엄청 즐비해 있었다. 차를 보는 것만으로도 상해의 경제수준을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동차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는 저렴한 편이 한 몫하는 것 같다.



- 중국차가 저렴한 반면 중국은 번호판가격을 따로 판다. 차량번호판에 따라 갈 수 있는 지역이 제한 된다. 비쌀수록 낮은 시한에 다양한 길을 이용할 수 있고 저렴할 수록 이용하지 못하는 고가도로나 출입불가 지역이 있다. 심지어 주차자리에도 가격이 붙는다. 해당 사진은 'A'차량만 주차하고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곳이다. 그리고 초록색 번호판은 전기차를 뜻하는데 중국은 전기차 보급률이 높아서 그런지 상해에서는 신형 전기차가 많이 보인다.



- 상해는 야경을 정부에서 관리한다. 하절기에는 저녁 6시 30에 점등해서 10시에 소등한다. 법적으로 관리하고 점등하지 않을 시 다음 날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린다. 그 이유는 외벽 조명 전기세를 정부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이다. 건물 지을 때 외벽 조명을 설치하도록 한다고 한다.

2. 기름요리가 발전한 중국 식문화



- 중국은 음식을 날것으로 거의 먹지 않는다. 대부분의 음식을 기름에 볶거나 튀긴다. 중국의 물이 대부분 석회 성분이 많아 흠내가 강하여 지을 수 없어 차문화가 발전했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물로 만들어진 음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을 적게 쓰기 위해 기름을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중국은 황토의 퇴적으로 농사엔 최적이지만 무척 건조하여 몸에 기름기가 많아야해서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필요로 한다.
- 1, 2번째 사진은 중국의 다양한 음식들인데 전부 기름 요리이고 3번째 사진은 상해의 유명한 밀크티이다. 확실히 한국에서 먹은 밀크티와 맛이 다르고 깊은 맛이 난다.



- 중국음식은 재료가 광범위하다. 위 사진은 메뚜기 꼬치를 파는 것이다.



- 북경오리이다. 제일 기대했던 음식이자 왕실과 귀족들이 즐겨먹었던 음식인 만큼 맛있다.

- 샤브샤브는 중국의 슈안양로에서 기원 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고수 향이 세다. 중국 요레에서 고수는 요리의 맛을 돋우고, 건강에도 이로운 재료로 널리 활용 된다. 향균 작용을 하면서 음식의 부패를 막는데 큰 도움을 준다. 고수에 알데히드라는 성분이 있는데 알데히드성분에 민감한 유전자를 지는 사람들은 고수를 먹을 때 비누나 세제를 먹는 맛이난다고 하여 싫어하는 경우가 있다. 처음에 먹었을 때는 고수음식이 부담스럽고 거부감이 들었는데 3박 4일을 지내면서 적응을 하게 되었는데 거부감보다 오히려 콧속에 고수향이 맴돌아서 찾게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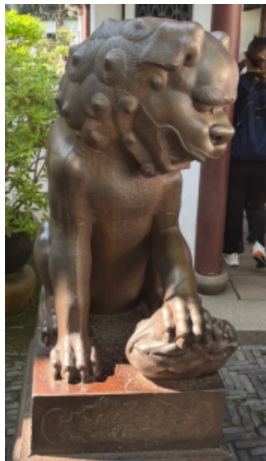
- 동파육은 항주에서 유래되었으며 항주출신인 소동파와 깊은 연관이 있다. 소동파는 송나라 시대의 유명 시인이자 정치가였다. 농사법을 전파하고 지역 경제를 크게 발전하여 농민들과 친밀한 교류를 하였다. 그당시 소동파에 고마워 하여 많은 백성들이 소동파에게 귀한 고기와 술을 감사의 의미로 선물하여 소동파의 집에 고기와 술이 넘쳤다고 한다. 고기가 너무 많아서 다 먹을 수 없어 이고기를 요리해서 다시 백성들에게 나눠주려고 소동파의 부인에게 요리를 부탁한다. 소동파의 부인은 너무많은 음식을 준비해야하여 분노하게되면서 그냥 술과 고기를 몽땅 넣어서 요리를 했다. 술을 넣으면서 고기가 부드러워지고 잡내가 사라지면서 그당시에 없던 새로운 맛있는 요리가 탄생하게 되었고 백성들이 이 술로 만든 고기 요리 이름을 소동파의 이름을 따서 '동파육'으로 짓게 된 것이다.

- 세번째 사진은 호텔 조식이자 항주에서 유명하다는 약밤사진이다.

3. 중국 내 항일 운동과 중국 역사



- 상해임시정부부터 항주 임시정부, 임시요원 거지주인 매만가, 그리고 홍콩 공원 방문했다. 시설적으로 봤을 때는 모두의 의견이 동일하게 좋게 느껴졌다. 하지만 3, 4번째 사진과 같이 방에서 바로 나와 피난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강으로 갈 수 있는 배를 만들어 놓은 거 보면 그 당시 시대가 얼마나 급박했는지 알 수 있었다. 한국사 공부했던 것과 가이드분의 해설을 통해 그 당시 어떤 감정으로 살았을지 가늠이 가지 않았다. 주변동로도 쉽게 믿기 힘든 환경이고 언제 죽을 지 모르는 공포속에서 대한독립을 위해 살아간다는 게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대단함이라고 생각했다.



- 서호이다. 서호에는 단교잔설이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랑이야기 담겨져 있다.

- 예원정원이다. 왼쪽 해태는 아기해태를 발아래둔 이유는 엄하게 자식을 키우겠다는 뜻이고 오른쪽 해태는 공을 가지고 있는데 권력을 상징함.
- 두번째 사진을 보면 다리가 일직선이 아니라 두번정도 각도가 져있는데 일직선만 가는 강시를 방어하기 위해 저렇게 만들었다고 한다. 세번째 사진도 마찬가지로 중국 문턱이 높은 이유는 강시가 발걸려 넘어져 못들어오게 하기 위함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 송성가무쇼이다. 세계 3대 쇼라고 부르는 의미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연출이 정말 훌륭했다. 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서 구성도 알차고 3장에서 단교전설의 내용도 다룬다. 송성테마파크 내부에도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요소가 정말 많다.



- 동방명주탑 내 역사박물관이다. 교통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떻게 발전했는지 보여준다.

4. 중국 안전관리 실태



- 안전관리자로 재직중이면서 안전관리학과를 다니면서 중국의 안전관리 실태를 눈여겨 보게 되었다. 상해에서는 건설현장이 많이 있었다. 내가 보고 들은 중국 현장의 안전관리수준은 우리나라의 1970~80년 대수준이라고 교육을 받았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생각보다 외관상으로 너무 잘해놓은 것이 보였다. 과하다고 생각 될 정도로 안전수칙에 맞게 잘해놓은 부분도 많아 깜짝 놀랐다. 중국에 대한 프레임이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 사진상으로는 잘보이지 않지만 비 온 다음날도 공사를 강행하지 않고 관리자 한두명만 나와서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추락위험이 있는 곳은 생명줄과 추락방지대도 잘 설치되어 있었다.



- 우리나라 고소작업대 작업은 생각보다 난간대를 열어 놓고 시내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본 중국 현장은 그런 현상이 없었다. 난간대는 아트론으로 모두 감싸 놓았다. 안전고리도 철저히 체결하였다. 어떤 면에서는 안전성이 우리나라보다 우위에 있다고 느꼈고 저렇게 까지는 보통 우리나라에서 잘 안하는데 어떤 체계가 저렇게 안전하게 작업하게 만든 것인지 너무 궁금했다.
- 하지만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었지만 오른쪽 중간사진 처럼 열악한 현장도 있긴 하였다. 오른쪽 맨 끝에 사진처럼 환경이 주어짐에도 난간에서 안전장치 없이 위험하게 작업하는 경우도 발생하긴했다.



- 중대 시민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장 주변을 정말 잘 통제하고 눈관리 표시도 잘해놓았다. 낙망도 잘 많이 들어 놓았고 손색없었다.





• 제28기 해외 역사문화 탐방 소감문

중국은 어떤 곳일까하는 기대감과 흔히 말하는 중국의 안 좋은 일만 겪다 오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을 안고 역사탐방을 가게 되었다.

공항에 도착하여 어색한 사이로 시작 되었지만, 학우님들이 인성과 성품이 너무 좋으시고 많이 챙겨주셔서 금방 공동체에 적응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었다.

중국에 들어가자마자 내가 생각했던 중국과 너무 달라서 놀랐다. 열악하다고 생각했던 중국 상해는 엄청 경제적으로 발전해 있었고, 내가 일하는 직무 관련해서도 대단한 점이 많았다. 일체의 중국의 부정적인 순간들이 깨지는 순간의 연속이었고 편견이 모두 깨졌다.

한번 더 문화의 다양성을 경험하게 되어 좋았고 중국 현지음식을 경험해보고 싶었는데 한메뉴만 먹는 것이 아니라 뷔페처럼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장점까지 있어 너무 행복했다. 교과서에 나오던 북경오리와 동파육을 맛볼 수 있어 버킷리스트를 달성한 순간이었다.

여행의 1순위는 항상 함께하는 사람들을 1순위로 뽑는 데 서울사이버대 학우님들이 너무 다들 좋으셔서 더욱 행복한 순간이었던 것 같았다. 다양한 분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너무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다. 오길 잘한 것 같다는 생각 들었다.

이런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역사탐방이 잘 진행 되길 기원한다.